

### 갤러리 색즉시공



” (삼초)

不二關廣藏法界 (불이관광장법계)  
불이(不二) 관문은 넓어 법계를 감추고

入聖出凡無住 (입성출성무거)  
범부를 나와 성인에 들어 걸림이 없으라

等閒把住問掃 (등한파주문삽초)  
등한히 삽과 가래를 낚는 뜻을 물으니

底事分明却不會 (저사분명각불회)  
그 일은 분명해서 도리어 알지 못함이라

미술·글·선진 스님

## 나의 주변에 부처님이...

### 나의 이웃들

옛 말에 '세 누고 집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일 년에 두 번 한겨번에 양말을 열 켤레쯤 사서 아파트 경비아저씨, 택배를 오시는 분, 우체부 아저씨 등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하루는 동네 구뭇가게에서 구두를 닦는데 구뭇가게 아저씨가 구두를 닦아주며 한 격정 했다.

“해마다 전세금이 올라가서 걱정이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살림이 좁아짐 나가지 않는 게 서민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찡했다. “아저씨 우리 집 양반이 키가 좀 작으세요. 아저씨와 열주 같을 것 같은데 웃고 구두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날 이후로 아저씨와 나는 친해져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한번은 수선할 구두를 가지고 가니 아들이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내게 아들의 합격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티셔츠라도 사주세요.” 하고 축하금을 전했더니 고맙게 받았다. 살아보니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 자유롭고 기뻐던 것 같다. 하나 알면 하나 쥐어주고 하나가 있으면 반절을 그 자리에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친소, 부모형제, 거리 따지고 나중에 먹을 것, 살 것 생각하고 살면 누구랑 언제 만나 밥을 먹고 사랑을 하겠는가. 남편 사이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멀리 어려울수록 겪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 해왔다. 이웃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게 진정한 바라밀이 아니겠는가! 송파에서 가정법회를 시작했던 것도 내 집에서 모이던 좀 더 넉넉히 나눠줄 수 있고 따뜻한 밥도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친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만나는 순간순간이 내게는 입재였고 헤어

질 때 회향이 되게 했다. 방석 위에 앉아 참선을 하거나 불법을 배우려고 밖으로 다니는 것보다 사가아이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일,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일에 있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수련이요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줄 때가 온전한 주인공 역할이다.

“마음 닦는 공부만 하세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세요.”

해인사 종진 스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지식이 곁에서 조언을 해주셨기에 남을 돕는 일을 마루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습관도 실천하고 살았던 것 같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누가 구하러 내 집에 오면 그냥 다 내주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기에 남들이 말하는 노후대책을 해본 일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불교를 알고부터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운명을 운전해왔다. 부를 쫓기보다는 마음공부를 추구해왔고 조건 없이 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있어버리고 살아왔다.

불교를 알고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한 것인데 드러나는 몇 가지에 집착해 싸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생은 연극과 같고 나는 연극을 무대에 내놓는 연출가다. 내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진다.

### 장경호 거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어제 저녁 밤새워 동국제강 창업주이셨던 장경호 거사님 평전을 다 읽었다. 너무 잘 읽었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다. 책을 읽고 “제가 불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어느 재가불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하게 상구보리하회중생을 위한 보살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

###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세뇨로 집, 천냥으로 이웃 산다”

장경호 삶 읽고 ‘포교’ 다시생각 작은 공덕 실천이 ‘부처’로 가는 길

면 바로 이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까지 읽는데 가장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분이 울산 근처에 수도원을 만들려고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과감하게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불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장면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만두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다.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큰 삶을 사셨던 분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려는 원력을 가지고 서울 주재가에서 가정법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로서 집을 법당 삼아 공양주 노릇을 하면서 민들레 흩씨가 되어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자아완

성을 하고자 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의기투합이 되는 것을 느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느 재가 불자가 포교를 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경호 거사님은 우리나라 민간 철강 제일의 동국제강을 창업해서 사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신 분이다. 토굴에서 안거를 함께 나가는 사람을 만드는 수도원을 만들 것을 함께 계획했던 성수 스님은 묵묵히 수행하던 모습이 마치 저 옛날의 조사 스님을 보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어느 경계에서도 절대 속지 않는 경지에 가 있었다. 수행과 교화에 있어서 근현대를 통틀어 동양 제일의 거사였다.”는 말씀은 그분이 얼마나 수행력이 깊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철강업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민족정신을 품었던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에는 선지를 깨닫기 위해 일생을 산대서운 수행자의 모습과 함께 ‘자아를 발견하여 지상에 낙원을 이룩하라’는 기치 아래 대중불교운동을 펼친 전법자의 모습이 공존했다고 한다. 새벽녘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읽으면서 “아, 대중교화에서 원력이 이리도 깊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수시로 눈물이 나왔다.

평소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살아 숨 쉬는 경전이 대중들에게 읽힐 때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장경호거사의 사제로 세워진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역경사업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큰 불사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대장경 완간에는 장경호거사의 한국불교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스며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인연이 느껴졌다.

부인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일꾼들의 밥을 직접 지어주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어머니 일하는 아주

머니 시키세요” 라고 하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처님들의 밥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며 손수 밥을 지어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큰 어머니 역할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 동안 불교방송국에 약간의 후원금을 보냈고, 불교방송국이 창립되면서 주식을 사놓은 일도 있고, 장경호거사님으로 인해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 주최의 대원상도 추천받은 적이 있으니 동국제강과 인연이 깊기는 깊은 게 보다.

### ‘부처’로 가는 길

내리사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치기사랑도 있었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치기사랑이다. 부처님께 내놓아보라. 언젠대 빈자리를 채워주신다.

그런처럼 정확한 분은 없다. 공덕을 쌓은 만큼 기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생에 내가 베풀지 않았으면 이유 없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걸 안 이상 ‘주는 것’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덕을 쌓아가고 수행이 쌓여가는 과정이 ‘부처’가 되어 가는 것이리라.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돈 한 푼 두 푼이 쌓여 통장이 불어났듯 작은 공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부처’에 다가가는 것이다.

상대가 산꼭대기에 있으면 산꼭대기에, 강물 바닥에 있으면 강물바닥에, 열음구렁이에 있으면 열음구렁이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가면 부처님은 결코 밟아내지 않으신다.

욕심과 사심을 가지고 가면 부처님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착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사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사나운 일만 생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요 세상의 섭리다. 내가 일꾼들을 세워 마음을 바칠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여여원 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辨公案),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모티 공급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지천기 운전만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비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원천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합니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